

평창올림픽 입장권 양극화 없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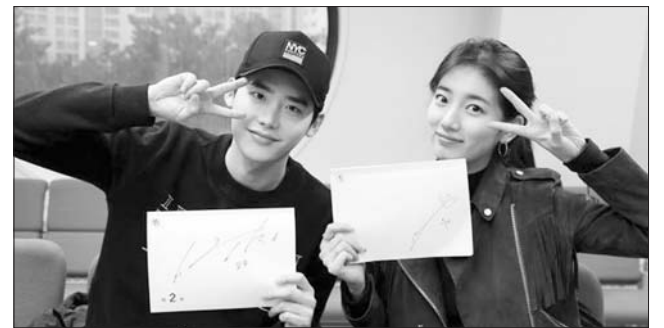
조직위, 비인기 종목 경기장 빈 자리 최소화 국내 목표 75만 중 5만2000매 판매... 기대 이하 한정판매·구매 인증 이벤트 등 전략 펼칠 것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5개월여 남기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입장권 판매에 총력을 펼친다.
무엇보다 1차 온라인 예매를 통해 뚜렷하게 나타난 인기·비인기 종목 간 양극화 현상을 최소화하는 홍보를 펼쳐 각 종목 경기장에 빈 자리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평창올림픽 입장권은 총 118만 매가 발행되며 이 중 70%는 국내에서, 30%는 해외에서 판매된다.
조직위의 목표는 발행량의 90%인

107만매를 판매하는 것이다. 국내 75만매, 해외 32만매 판매 등이다.
조직위는 지난 2~4월 온라인 1차 판매·추첨 신청을 받은 뒤 5월에 당첨자를 발표, 5~6월 결제를 진행했다.
판매량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 듯하다.
1차 온라인 예매에 배정된 입장권은 16만매였고, 38만4000매에 대해 추첨 신청이 이뤄졌다. 그러나 실제로 결제된 판매량은 국내 판매 목표량의 6.9%인 5만2000매에 불과했다.

양극화 현상도 뚜렷했다. 개·폐회식과 빙상 등 인기 종목의 입장권은 수월하게 판매됐지만, 국내에서 비인기 종목인 설상, 썰매 입장권 판매율은 낮았다.
빙상 종목인 쇼트트랙이 60%, 피겨스케이팅이 42%, 스피드스케이팅이 40%의 판매율을 기록한 반면 크로스컨트리와 스키레톤은 각각 12%, 11%에 그쳤다.
조직위는 다음달 5일 2차 온라인 실시간 판매를 시작하면서 비교적 자원의 제약이 덜한 온라인 홍보에 힘을 기울인다.
양극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위가 꺼내는 것은 '한정 판매 촉진' 전략이다.
인기 종목의 입장권을 모두 판매한 후 이것이 비인기 종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판매 개시 전까지 인기 종목

입장권 구매를 촉진하고, 실시간 판매 개시일부터 12월까지 입장권 구매 인증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올해 12월 이후에는 올림픽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한정적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비인기 종목 입장권 판매를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포털 사이트, 광고 등을 통한 홍보도 이어간다. 조직위는 입장권 판매 목표량 달성을 위해 단체 판매도 병행한다.
8월 중으로 이회복 조직위원장 명의로 서한문을 발송해 정부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 구매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와 연계해 올림픽 비인기 종목과 패럴림픽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총 8000개교의 32만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뉴시스



이종석·배수지 올 가을 안방극장서 호흡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

SBS 새 수목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 측이 캐스팅 라인업과 함께 대본리딩 현장 사진을 1일 공개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는 누군가에 다칠 불행한 사건 사고를 꿈으로 미리 볼 수 있는 여자와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검사의 이야기다.
배우 이종석은 한강지검 형사3부 검사 '정재찬' 역을, 배수지는 꿈으로 앞날을 미리 보는 '남홍주' 역을 맡았다. 이상엽은 검사 출신 변호사 '이유범'으로, 고성희는 재찬의 직장 동료 '신희민'으로 분한다. 재찬의 직장 사무실 동료로는 김원해·박진주가 낙점됐다.
김원해는 수사관 '최담동' 역, 박진주는 실무관 역을 맡았다. 이 밖에도 부장검사 '박대영' 역에 이기영, 수석 검사 '손우주' 역에 배해신, 차석검사 '이지광' 역에 민성욱이 캐스팅됐으며 재찬의 동생 역할로는 신재하가, 홍주의 엄마 윤문선으로 황영희가 출연한다.
이종석·배수지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파주 원방세트에서 마지막 촬영을 마무리지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는 다시 만난 세계' 후속으로 방송된다. /뉴시스

서울국제뮤직페어 로드쇼, 장르별 대표 뮤지션 총집합

YB·장기하와 얼굴들 크러쉬·도끼&더 콰이엇 등 실력과 기수들 대거 참여

밴드 'YB'와 '장기하와 얼굴들', R&B 가수 크러쉬, 래퍼 도끼&더 콰이엇, 재즈 보컬 웅산 등 대중음악의 장르별 대표 뮤지션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직무대행 강만석)은 지난 1일 오전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2017 서울국제뮤직페어 로드쇼'를 열었다.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상암 DMC 일원에서 열리는 '2017 서울국제뮤직페어(MU:CON 2017·뮤콘) 쇼케이스'에 참가하는 64개 팀을 공개하는 자리다.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뮤지션들이다. ▲밴드&합합 뮤지션 중심의 '뮤콘 스테이지' ▲K-팝 & 보컬리스트 중심의 'AMN (Asia Music Network) 스테이지'로 나눠 특색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
밴드&합합 부문에는 YB와 장기하와 얼굴들 외에 모던록 밴드 '몽니', 합합계의 음유시인 MC스나이퍼x스콕프 밴드 등을 비롯한 24개 팀이 출연한다.
AMN과 함께 하는 K팝 부문에는 2NE1에서 솔로가수로 전향한 공민지, 뉴 트랜드 밴드 앤플라임, 한·중·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1일 오전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2017 서울국제뮤직페어 로드쇼'를 열었다.

다국적 멤버로 구성된 크로스 진(Cross Gen) 등 총 26개 팀이, 보컬리스트 부문에는 한국대중음악상 4회 수상에 빛나는 이승열, 달콤한 사랑노래 '뽀'의 정기고, 버클리 음악대학 출신의 재즈 솔 보컬리스트 허성 등 6개 팀이 참가한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해외 프로듀서와 국내 실력과 뮤지션과의 협업 프로젝트 '뮤콘 콜라보' 프로그램 역시 내실이 탄탄해졌다.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 브리트니 스피어스, 사키라 등의 앨범을 프로듀싱한 페르난도 가리베이와 '음원 강자' 크러쉬, 1990년대 힙합신을 이끈

이스트코스트 힙합의 대부 '우렁 클럽'의 멤버 인스펙터 텍, 최근 힙합신에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는 힙합 레이블 일리네어 레코즈(도끼&더 콰이엇),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겸 영화 음악감독인 존 비글리와 웅산 등 총 3개 팀이 이번 뮤콘 쇼케이스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새 음악을 공개한다.
크러쉬, 더콰이엇, 웅산은 세 거장의 작업에 대해 설명했다. 크러쉬는 "제가 음악 공부를 하던 대학 시절에 레이디 가가의 '본 디스 웨이'를 들으면서 영감을 받았는데 그 앨범의 프로듀서와 작업을 하게 돼 영광"이

라고 했다.
더콰이엇 역시 우렁 클럽에 대해 "저희 또래 힙합 뮤지션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고 저도 초창기에 랩을 들으면서 공부했다"며 협업 아티스트에 대한 존중심을 드러냈다.
웅산도 "재즈 역사에 위대한 혁명가로 통하는 마일스 데이비스와 함께 연주했던 분이자 실험적이고 진취적인 재즈 뮤지션과 함께 하게 돼 영광"이라고 했다.
이 밖에 국제 음악 페스티벌 간 무대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 캐나다, 베트남, 러시아 등 4개국에서 5개 팀이 쇼케이스에 참가한다. /뉴시스

개그맨 신종령, 특수폭행 혐의 경찰조사

KBS 2TV '개그콘서트'로 얼굴을 알린 개그맨 신종령(35)이 특수 폭행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1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신종령은 이날 오전 5시20분께 마포구 서교동의 한 합합클럽에서 만난 이모(24)씨의 얼굴을 자신의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옆에 있던 철제 의자도 그를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옆에서 말리는 김씨의 친구 김모(24)씨도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신종령은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서 "피해자들이 폭행당했다고 신고했고, 피해자들과 신

최규순 "혐의 인정합니다"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전 심판팀장 최규순(51)씨가 본인과 관련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씨는 1일 본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 앞서 '구단 관계자에게 돈 받은 혐의 인정하느냐. 도박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익)는 지난달 30일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최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0월부터 총 30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고 돈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혐의가 있다.
최씨에게 돈을 빌려준 이들은 두산 베어스,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KIA 타이거즈 4개 구단 관계자인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KBO 규약에서는 심판과 구단 관계자의 금전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